

중국, 석유메이저 감독권 강화

펑라이 원유유출 계기 ... Conoco Phillips China · CNOOC 대상 소송

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석유메이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.

중국 관영신문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당국이 보하이(渤海)만 펑라이(蓬萊) 유전에서 원유가 유출됐던 사건을 계기로 석유메이저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월7일 보도했다.

펑라이 19-3 유전에서는 6월 초부터 원유가 유출돼 5개월 가량 이어지면서 일대 해역 5500km²가 오염된 바 있다.

사고 후 중국에서는 원유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잇따랐으며, 해외 석유기업들이 CNOOC(중국해양석유총공사)와 합작계약을 통해서만 중국에서 석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.

중국에서는 국토자원부, 국가에너지국, 국가품질감독총국, 환경보호총국, 국가해양국 등 관련 부처의 석유·가스 개발에 대한 감독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한편, 중국 정부는 펑라이 유전 원유 누출로 생긴 환경오염과 관련해 합작기업인 Conoco Phillips China와 CNOO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1/07>